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와 교육 ①

‘氣 죽임 문화’... 협력보다 경쟁 배운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 비틀기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토끼와 거북이의 이솝 우화를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제도교육을 처음 시작하면서 거의 백지상태인 나의 뇌리속에 일찌감치 자리잡았던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다른 무엇보다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이 이솝우화의 교훈은, 자만하지 말고, 불리한 조건을 탓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당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회 압축적 고도성장을 도모하던 시절, 이 우화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교육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우화에 조금 깊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물레 지나가게 그 거북이의 심방을 틀러먹었다고 비판한다. 교과서에 나올 만큼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0여년전 당시 야당인 평민당의 심봉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인삼각이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식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우화를 통해 나의 마음에는 결국 ‘승리’에 대한 집착과 압박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 ‘1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세뇌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끼가 잠을 자는 실수를 한 것은 거북이에게는 꼭 다행스런 일이 된다. 이토록 경쟁에서 상대방의 실수, 실패는 나에게 승리이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깊이 각인되었다. 그런데 더 깊고 자세히 뜯어보면 이 게임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칭송해 마지않는 ‘거북이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토끼가 잠을자는 실수’를 범해서 어부지리로 이긴 것이다. 그것이 솔직한 승리의 원인이라 믿는다.

우화를 더 비틀어 시비를 걸자면, 토끼는 토끼끼리,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예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은 두 대상을 같은 무차별적 평등조건에서 경쟁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이다. 아무튼 이 게임은 공동체의 이익, 남에 대한 배려, 사랑, 협동적인 가치와 전혀 반대로 개인주의적 이익,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인간의 사적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격려하는 우화인 것이다.

경쟁의 가치, 죽임의 삶, 그리고 교육

교훈적 내용인 이 우화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끊임 없는 경쟁적 삶이 펼쳐진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은 1등에서 꼴찌까지 이어지는 시험과 입시경쟁, 취업경쟁 등 모두 경쟁이다. 죽을때까지 경쟁 하는 것이다. 경쟁은 곧 이기고 지는 게임이며,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져야 한다. 누군가의 실수는 곧 나의 이익이다. 주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에 대한 인식의 기본 토대는 나와 상대를 철저히 구분하고 가르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전투화 한다.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용기를 북돋는 말까지도 ‘화이팅(싸워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승리 전략은 우리 삶의 곳곳에 짙고 교묘히, 세세하게 배어 있다.



2004년 지리산 실상사 대한학교인 작은학교의 축제와 운동회 모습.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숨쉬며 세상과 어떻게 상생해 나갈것인지를 스스로 배운다. 무한경쟁사회의 ‘죽임의 교육’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이기심 극대화 경쟁적 삶에 패배감·열등의식 양산 자살, 우울증... ‘기죽임’ 문화서 비롯

이 많은 경쟁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많을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과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과연 누가 더 많겠는가. 아마도 승리하는 사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갖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한 게임에서 실패했었다고 해도 더 많은 다른 게임에서 그 승리자가 계속 이기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패배하거나 피해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더욱이 사람은 성공했던 기억보다 피해의식, 패배의식, 상처받았던 의식이 훨씬 더 오래 심리적으로 각인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사회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의식, 패배감, 열등의식을 양산하며 사회적 상처들이 내면에 켜켜히 쌓이게 만드는 사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말에 자주 쓰이는 말중에는 기(氣)와 풍(風)이라는 말이 있다. ‘분위기(雰圍氣)를 살린다. 기운(氣運)을 북돋운다. 사기(士氣)를 높인다. 정기(精氣)를 세운다’ 라는 말로 쓰이며 특히 ‘기를 살리고 죽인다’는 표현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장 자주 사용된

다. 또한 학풍(學風), 교풍(校風), 가풍(家風)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일정한 경향과 분위기 및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패배와 피해의식, 상처는 결국 사람들의 ‘기를 죽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기(氣)죽임’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살아가는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더욱 심해지면 실제 물리적 죽음으로 비화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10만명당 31.2명으로 세계 1위이다. 1년에 약 2만여명이 자살한다고 한다. 또한 이보다 30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한다. 우울증환자들도 심각하다. 결국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氣) 죽임’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죽임의 문화가 우리사회 곳곳에 배어있지만 특히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시스템인 교육속에 더욱 짙게 이러한 문화가 스며들어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죽임의 교육’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이러한 죽임은 사람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국가도 곧 그렇게 혼승된 이기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곳이다. 기업에게 ‘자연을 보존, 환경보존’의 구호는 회사의 공익적 이미지를 만들어 상품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큼만 주장할 뿐이다. 또한 정치는 10년, 20년 뒤의 장기적인 국가 설계보다, 선거와 선거기간만 책임지며, 끊임없이 개발공약만 내세우는 정

개발·성공위주 교육에서 왕따 문화 생겨 대안교육은 ‘죽이는 교육’ 부작용 줄일뿐 ‘홈스쿨링’ 대안적 방식이 주목받아

치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환경을 주장하긴 하지만, 경제성장이 그대도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야 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에는 수많은 토건족들을 중심으로한 토호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시인 김지하가 말하는 ‘죽임의 문화’이며, 루돌프 바로(Rudolf Bahro)가 말하는 ‘스스로 자살하는 거대한 기계사회’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과 인간과의 죽임이, 인간이 자연을 죽여 나가는 관계로 확장된 것이 바로 환경오염, 자연 파괴로 이어진 것이다. 나아가 인간끼리의 죽임과 자연을 죽여나가는 관계가 결국 인간 스스로 죽여가는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죽임의 순환고리, 죽임의 문화가 악화된 환경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지켜나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의 문화, 죽임의 사회를 살림의 가치가 흐르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생태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성공, 경쟁에서의 승리, 이윤과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결국 경쟁적 인간형을 양상할 뿐이다. ‘배워서 남주자’가 아니고 ‘배운것은 내만갚자’는 것이다. 그 배움을 이용해 남을 속이고 영달을 위해 돈만 벌기에 혈안이 된 괴물들을 양산한다. 그 과정에서 낙오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일진회’라는 폭력의 커뮤니티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거나, 수많은 ‘왕따 문화와 자살’의 문화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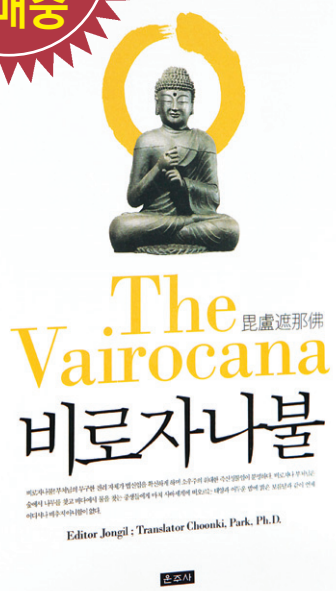
이러한 개발위주의 교육, 성공위주의 교육, 일류대를 향한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을 말할 것도 없고 제 아무리 ‘대안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는 못하고 ‘죽이는 교육’의 부작용의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뿐이다.

서로 협력을 배우기 보다, 경쟁을 배우는 학교, 지식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돈을 배우려는 학교, 그래서 학교간의 파벌을 만들고, 배울수록 진통을 부정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교육, 이것이 제도교육의 근본 바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홈스쿨링’이라는 대안적 방식이 주목을 받고

유정길 (예코닷컴) 전 공동대표 ·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범람함 참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참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이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승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중

■ 보경사 031)755-3336



http://www.에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남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남품장란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 (티셔츠/모자/바림막이/유니폼/쥘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